

경제원리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논의

최태연*

논문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경제의 원리를 기독교 철학적으로 논의하고자 시도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기독교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철학이나 사회과학 이론과 대화하면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활동이다. 기독교신앙으로 볼 때, 경제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경적인 경제원리는 모든 재화의 본래 소유자가 하나님이므로 인간은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재화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 경제활동을 통해 재화를 사회적으로 획득했지라도, 그 재화는 자신이나 가족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경제원리는 '사유재산권'과 '책임'과 '자유'라는 경제원리와 '정의', '평등', '사랑'(charity)의 정치 내지 윤리적 가치를 성경적인 경제원리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존 롤즈의 『정의론』은 현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안에서부터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자유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주제어: 경제, 하나님, 소유권, 사유재산권, 책임, 자유, 정의, 평등, 사랑, 존 롤즈, 자본주의, 자유주의

* 천안대 기독교학부 교수

- I. 경제원리와 기독교철학
- II.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소유권
- III.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IV. 맺으며

I. 경제원리와 기독교철학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도 아닌 기독교철학자가 '경제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평생가난하게 산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제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제를 '기독교 철학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다. 기독교철학도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기독교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일반 철학이나 학문이론과 대화 내지 대결시킴으로써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경제의 원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찾아내어 최근의 사회철학과 경제학 연구와 접목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

일반적으로 경제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및 그와 관련되는 질서와 행위의 총체”²⁾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경제 현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런데 경제원리를

1) 최근에 한국의 경제학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현대의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풀이한 연구로는 이윤재(2004)가 있다.

2) naver.com <경제> 항목.

철학적으로 논의하려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분배하는 행위의 이유 내지 목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일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생존'(existence)의 이유일 것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 태어났다. 살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숨쉬는 공기 이외에 의, 식, 주의 조건이 필요하다. 인간은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자연'(nature)으로부터 얻는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이란 경제학의 개념으로 말해서 공기, 물, 토지, 지하자원, 동식물 등이다. 경제행위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이러한 자연을 이용하거나 가공해서, 즉 노동(labor)을 통해서 재화(commodities)를 만드는 행위이다. 인간의 역사는 사회 안에서 재화를 만들어 온 역사이며 재화를 이용하여 생존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선 지구상에 살아남기 위해서고 그 다음으로는 '잘'(well) 생존하기 위해서다. 잘 산다는 것은 우선 한국 사회에 요즘 유행하는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의미의 '웰빙'(well-being)의 의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잘 산다는 경제행위의 목적에는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차원도 포함 될 것이다.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잘 사는 것, 여기까지가 일반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의 목적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세계와 모든 재화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경제의 원리에 대한 생각은 아주 다르다. 크리스천은 이 세계를 소유주 없이 방치된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자연의 본래 소유자는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구약성경의 시편 24: 1-2는 이 생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이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 기초를 바다 밑에 놓으셨고, 강바닥에 단단히 세우셨구나.³⁾

따라서 인간은 본래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세계의 모든 재화를 관리하고 이용할 뿐이다. 이 말은 크리스천은 자신이 비록 재화를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했을지라도 그 재화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물로 여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크리스천은 그 재화의 원소유권을 인정하고 원소유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재화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제행위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나는 크리스천은 자기가 가진 재화의 이중 소유권, 즉 하나님의 원소유권과 사회적으로 인정된 소유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understand)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중 소유권의 대상인 재화를 어떻게 '사용'(use)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필자는 첫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proprietary rights)과 '책임'(responsibility)과 '자유'(freedom)라는 경제원리를 고려해야 하고 둘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의(justice)와 평등(equality)과 '사랑(charity)의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란 사유재산을 주장할 권리(자유)와 책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 또는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경제의 기본 원리들을 기독교철학에서 다룬다는 것은 철학이나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어 왔던 주제인 소유, 책임, 자유, 정의, 평등, 사랑의 원리

3) 모든 성경인용은 '표준 새 번역'을 참고했다.

를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다.

II.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소유권

(1) 사유재산권(proprietary rights)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자, 마지막 보루라면 이 세계의 모든 재화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해 주셨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는 역사상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신학적으로 대답하기 위해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서 '문화위임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 27-29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적어도 네 가지를 가르쳐 준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demût, şelem; image)⁴⁾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둘째, 남녀 인간을 창조하셔서 성적 결합을 통해 자녀를 낳아 자손대대로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점이고, 셋째는 인간에게 모든 생물에 대한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점이며, 넷째로는 모든 식물(植物)을 음식으로 주셨다는 것이다.⁵⁾ 따라서 인간은 이 세계의 재화의 진정한 주인(owner)이 아니라, 단지 대리인이나 청지기(steward)라고 하여도 실제로 그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시편 8: 5 말씀대로⁶⁾ 인간은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았으며 생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졌고 모든 식물, 나중에는 동물까지도 음식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재화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주장은 사실이 위임명령으로부터 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명령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에서는 이 위임명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타락(fall)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 남아 있

4) 이 '형상'을 이레니우스 이후의 전통적인 교부들은 두 가지의 인간 본성으로 구분했다. 하나는 이성이나 인격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본성이고 또 하나는 구원에 의해 하나님과 유사해지는 초자연적인 본성이었다. 또한 현대에 와서 형상성을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유사함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Humbert, Gunkel, von Rad) 그러나 필자는 형상성을 인간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능력 - 영혼, 양심, 지성, 감성, 미감, 통치력 - 으로 이해한다. 참고 Westermann (1976: 205-209); Wenham, (1987: 29-30); Hamilton, (1990: 132-138).

5) 창세기에서 동물을 음식으로 하는 일, 즉 육식이 허락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3장의 인간의 타락 사건 이후 3:21에서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는 구절을 육식의 근거로 보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일 것이다. 참고 Hamilton (1990: 207).

6)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고 믿는다.⁷⁾ 따라서 이 명령은 재화에 대한 '사유재산권'(proprietary rights)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재산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대리인(칭지기)적 소유권'이다.

실제로 성경에서 사회적인 차원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약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소유권과 상속권의 예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5: 7에서 아직 자기 땅 한 평 없는 이주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약속한다.⁸⁾ 또한 15: 4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한다.⁹⁾ 이 약속의 연장선에서 여호수아서 13: 7-8에는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땅을 소유지로 분배받는 사건¹⁰⁾이 나온다. 구약의 대표적인 부자인 욥의 이야기를 다룬 기 42: 12에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처음보다 더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¹¹⁾

7) 이 믿음은 개혁주의의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와 '일반은총'(common grace)의 신학을 가능하게 했다. 참고 Bavinck (2003: 321), Berkhof (1982: 36).

8)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9)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엘리에셀]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10)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11) "주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만 사천 마리, 낙타를 육천 마리, 소를 천 겨리, 나귀를 천 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크리스천에게 이 문화위임명령은 사유재산권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책임의 원리를 제공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지배하는 권리인 통치권(dominion)을 주신 것이다. 시편 8편은 이 사상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시편 8:5-9)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와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았다. 문제는 이 권한이 인류의 역사에서 흔히 보이왔던 '정복'(conquest)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지배권은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형성', '평화로운 질서와 균형의 유지', '약자에 대한 돌봄'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지배권을 유럽인 이외의 다른 인종이나 자연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지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지배권이 가진 책임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부작용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원주민을 동원한 금과 은의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채굴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후 1812년 영국에서 뉴커먼에 의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가속화된 산업혁명에 의해 타 인종이나 자연에 대한 '착취'는 대량화 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사건 모두 기독교 국가를 자처했던 스페인과 영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서구 기독교와 무분별한 자연의 착취의 결합에 대해 1967년 린 화이트(Lynn White)가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한 논문 "우리의 환경 위기의 역사적 뿌리"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논문에서 화이트는 “자연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존재이유가 없다는 기독교의 공리를 거부하기 전에는 환경 위기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은 정통적인 크리스천과 너무 동화되어서 환경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그들로부터는 기대될 수 없다.” (Jeeves & Berry, 1998: 224)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사실 화이트의 비판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20세기의 크리스천들이 문화위임명령의 의미 가운데, 자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크리스천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을 일방적인 '정복'이나 '착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에 대한 논의는 모든 크리스천이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밀브레스는 같은 제목의 책에서 인류의 위기는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학습” 해온 결과인 “중으로서의 우리 인류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 (밀브레스, 1998: 33)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성공은 “지구의 자원을 인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밀브레스, 1998: 34) 해주었지만 '인구폭발'과 '생물권의 파괴'와 '기후변화'를 낳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밀브레스는 이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특히 저개발 국가의) 인구 억제, 에너지 사용의 제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보급, 대도시의 인구집중의 억제, 군사비를 환경보호비용으로 전환 등을 들고 있다. 크리스천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명목아래 자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무관심한다면 세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책임의 문제는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독교윤리학자 윌리엄 슈바이커는 기독교 책임윤리를 크리스천의 “모든 행위와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 (슈바이커, 2000: 60)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삶의 통전성(integrity)이란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맡겨진 재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경제행위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3) 자유(freedom)

앞서 말한 사유재산권과 책임은 개인의 자유와 떼어 수 없는 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는 사유재산을 갖거나 사회적 책임을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책임있는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과연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런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 출발해 보자. 성경은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선물이라고 본다. 이 자유는 이미 세계의 모든 생물에 대한 관리권과 음식권이 주어진 창세기 1장의 문화 위임명령에서도 암묵적으로 나타났지만, 창세기 2장의 금지명령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주어진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6-17)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허락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 즉 자유를 허락받은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열매는 썩었다. 인간은 뱀(사탄)의 유혹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3:1-20) 죄(sin)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은 자유의 이중성을 알려 준다: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그 점에서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가능성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항상 왜곡되어 실현된다. 최초의 인간이 이 자유를 잘 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유의 오용과 남용은 인간의 또 다른 본질이 되었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가 본래부터 전혀 없다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 수도, 추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 왔고 정치적으로 실현시켜 왔다. 고대에 당연시 되었던 노예제도와 중세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18세기 후반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등하다는 이념을 사회제도로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다. 그로부터 150여년이 지나서 20세기 중반에는 모든 여성과 남성이 참정권을 얻었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율적인 통치권을 얻었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는 헤겔(Hegel)이 설파했던 대로 자유의 실현의 역사이다. 기독교는 로마제국

의 노예제를 정치혁명을 통해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인이나 노예, 귀족이나 평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자매라는 신앙을 통해 근대의 자유주의를 준비했다. 특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계약을 유지한다는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은 17세기 이후의 사회계약이론의 토대를 제공했다.(터너, 1997: 38)¹⁴⁾

자유를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liberalism)는 바로 이 사회계약이론이 발전된 모습이다.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된 자유주의는 로크, 흄, 벤담, 밀, 루소, 몽테스키외, 칸트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고 숙성되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에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공통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 셋째, 개인의 모든 행위는 자기에게 귀속된다. 넷째, 개인들의 신념이나 상호간의 비판은 관용되어야 한다.(이근식, 황경식, 2001: 18-24) 자유주의는 이러한 신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경쟁적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세 가지 수단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1989년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주의를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자유주의의 근거한 민주공화국이며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에 대한 크리스천의 평가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는가? 이미 앞서 보았듯이 성경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이중적인 평

14) 칼빈의 언약신학에 대한 연구로는 Lillbeck, (2001)을 참고.

기를 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항상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역설적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법의 준수를 통해 이기심(selfish mind)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애(self-love)를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원리로 삼았다.(이근식, 황경식, 2001: 34) 그러나 실제 자유주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기심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이 자기애의 추구하고 항상 일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 크리스천은 바로 이 불일치의 원인을 모든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죄(sin)라고 부른다. 결국 기독교의 시각으로 볼 때, 자유주의의 한계는 원죄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근거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이근식도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빈부격차와 불황, 실업, 독점,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이근식, 황경식, 2001: 70) 자유는 소중하지만, 자유의 결과는 인간에게 항상 행복을 선사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자유는 필자가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정의, 평등, 사랑의 요구와 만나게 된다.

3.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 정의(justice)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공의)로운 분이라고 선포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정의(Sedeq)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

하시는 분이며(시 9:8) 정의로운 분으로 찬양받는 분이다(사 24:16).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도우시고(사 50:7)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벌 하시며(시 1:5) 억울하게 압제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시 146: 7-9) 분이다.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해야한다(신 25:1). 그래서 정의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어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 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 . .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 14-15, 24)

신약에서 하나님의 정의(dikaiosyne)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크리스천에게 “의롭게 하여 주심”(고전 1:30)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후 5:21)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은 크리스천을 정의롭게 살도록 만드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도록 요구한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칭의(Justification)가 결코 마음에 믿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

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야고보서 2:23-24)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정의의 요청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위, 인종, 국적, 성별, 지역, 빈부의 차이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불공정과 불평등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무리 경제행위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그 활동의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할 지라도 사회 정의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를 두는 자유주의 경제학에서조차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관심을 이론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존 롤즈(John Rawls)이다. 롤즈는 그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자유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는 자유주의 사회를 규제하는 '공정성'(fairness)을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 원칙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원칙은 최대한의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 원칙'이고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루기 위한 '차등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의 원칙은 실제로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롤즈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롤즈, 2003: 400)

롤즈는 정의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기회균등을 추구해야 하고 기회균등에 실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자의 이익을 강자의 그것보다 더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사회현실 속에서는 약자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최소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와 맥이 닿아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의 조건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이 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고 수혜를 많이 받는 계층에 속한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된다.

(2) 평등(equality)

신약성경은 인간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사도바울은 마르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썼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 .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 3:26, 28)

노예를 가축과 비슷하게 생각하던 고대세계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그의 『경제학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서양에 준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독교에 의해 영속화된 주요한 사회적 태도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형제 관계이며, 따라서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부'는 불평등한 권력·위신·향락의 원인이 되고 형제들 사이에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겔브레이스, 2002: 30-31)

기독교의 평등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중세까지도 부와 재화를 추구하는 일을 죄악시하며 가난한 삶 자체가 도덕적이고 고귀하다는 태도가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로 생각하는 성경의 여러 본문(예: 창 13:2, 왕상 3:13, 시 1:3-4, 잠 3:16, 마5:5)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도 이러한 청빈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얻은 이유는 자유주의가 낳은 현실적 모순 때문이었다. 현대의 자유주의 정치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은 가족제도를 근거로 사유재산이 존속하고 그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빈부의 격차에 의해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김만권, 2004: 128)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으로 부의 엄청난데 빠른 확산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와 빈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철학자나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철학자의 한 사람인 롤즈조차 자유주의의 이름아래 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정의론을 들고 나왔음에 틀림없다. 그가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평등한 자유였다. 그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각자는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에 입각한 완전한 적정구조에 대한 동등

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구조와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 그리고 다만 그러한 자유들이 그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롤즈, 1998: 6 ; 이근식, 황경식, 2001: 131)

롤즈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현실로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자유주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서 공정한 합의를 이루어야만 경제적 불평등이나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등한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역시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던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자유주의만으로는 정의를 이룩하는데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의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의 와중에서 기독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도 제시하지 못한 기독교의 대안이란 바로 '사랑'의 대안일 것이다.

(3) 사랑(charity)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구호 가운데는 '형제애'(fraternité)가 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liberté)와 평등(égalit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사랑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라고 말씀한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다. 우리가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 .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1서 4:16b, 20-21)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유를 주고 대신 관리하는 권한을 주신 분이 아니던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크리스천은 어떤 정치·경제 체제에 살고 있든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천을 사랑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그가 어떤 정치이념이나, 경제이론을 지지하든지 상관없다. 크리스천에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중에도 동료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골수 자유주의자나 자본주의자 중에도 주위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의 원리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이야말로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갖는다. 크리스천 경제학자 이운재는 기독교 신

아에서 나오는 사랑의 경제적 측면을 '은혜(grace)와 '사랑(charity)의 경제라고 부른다.(이윤재, 2004: 348-379) 이 사랑의 원리야말로 가장 소박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원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원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사랑의 태도 위에서 우리는 경제학 이론을 연구하고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근원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크리스천의 과제는 이러한 사랑의 자세를 어떻게 경제이론으로 만들고 현실 경제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맺으며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경제원리에 대해 기독교철학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믿는 크리스천이 자기가 가진 재화의 이중 소유권, 즉 하나님의 원소유권과 자신의 사회적인 소유권의 관계를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understand)해야 하는가의 질문과 이러한 이중 소유권의 대상인 재화를 어떻게 '사용'(use)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필자는 첫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유재산권(proprietary rights)과 '책임'(responsibility)과 '자유'(freedom)라는 경제원리를 논의했고 둘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의(justice)와 '평등'(equality)과 '사랑(charity)의 원리를 논의했다. 비록 이 논의가 아직 초보적 수준이지만, 이러한 논의를 연습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기독교

경제철학을 형성하는 첫걸음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 논의의 결론은 일반 정치경제학에서 중심원리로 다루어졌던 소유, 책임, 자유, 정의, 평등, 사랑의 원리가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 이 성경적 원리를 경제학과 경영학의 개념과 논리로 재해석함으로써 크리스천의 경제적 사고와 실천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만권 (2004),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서울: 개마고원
- 레스터 밀브레스 (1989), 『지속가능한 사회』, 이태건, 노병철, 박지운 역, 서울: 인간사랑
- 복거일 (2005), 『정의로운 체계로서의 자본주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브라이언 터너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울: 일신사
- 윌리엄 슈바이커 (2000),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문시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근식, 황경식 (2001),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경제 연구소
- 이윤재 (2004), 『성경 속의 경제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존 롤즈 (1998),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동명사
- 존 롤즈 (2003), 『정의론』, 황경식 역, 이화사
-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2002), 『경제학의 역사』, 장상환 역, 서울: 책벌레
- 차정식 (2000), 『신약성서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한들출판사
- Claus Westermann (1976), *Genesis 1-11*, *Biblischer Kommentar AT*,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 Craig Gay (2003), *Cash values: Money and the Erosion of Meaning in Today's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 Gordon J. Wenham (1987), *Genesis 1-15*, WBC 1, Waco: Ward
- Herman Bavinck (2003), *Reformed Dogmatics Vol. I*, trans. by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John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John Rawls (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ouis Berkhof (1982),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Malcom Jeeves & R. J. Berry (1998), *Science, Life and Christian Belief*, Leicester: Apollos.

Peter A. Lillback (2001),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Victor M. Hamilton (1990),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ABSTRACT**Christian philosophy on economic principles**

Tae Yeon Choi

My paper deals with a debate of Christian philosophy on economic principles. I mean Christian philosophy as a way of thinking in which the teaching of the Bible is dialogued or confronted with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theories, and as a way to persuade the contemporary people through this thinking. A Christian thinking does not content itself with a general definition of economic principles. The biblical principles of economy refers to God the Creator as the original owner of all commodities and the human being as the steward of these commodities. This means all money and property are not a exclusive possession for the Christian people. The Christian principles of economy are to interpret the economic concepts like proprietary rights,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and moral values like freedom, justice, equality, charity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I find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es of modern liberalism and capitalism. His theory comes near to the Biblical perspective of economy.

Key Words: economy, God the Creator, ownership, proprietary rights, responsibility, freedom, justice, equality, charity, John Rawls, liberalism, capitalism